

ISSUE BRIEF

청소년 with 이주배경

2024. 10.

12호

국내 고려인 청소년 현황 및 지역사회



〈청소년 with 이주배경〉은
이주배경을 가진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발간합니다.

발간번호

MYF24-14-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포괄적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관련
최근 이슈, 현장 사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자
2021년부터 **청소년 with 이주배경**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with 이주배경」에 담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 혹은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여는 글

국내 고려인 청소년 현황 및 지역 정착 방안	02
오정은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1. 이슈 발굴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08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국내 고려인 정책과 차세대 지원 방안	14
남부현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교수	
국내 고려인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2. 현장 리뷰

국내 고려인 청소년 적응 과정과 과제

하이웃이주민센터 - 경주시 김조훈 센터장	28
(사)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 김해시 안윤지 소장	34
국내 고려인 청소년 성장 사례(1) *지역	38
국내 고려인 청소년 성장 사례(2) 유가이 스테판(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상담 실무관)	42

여는 글

국내 고려인 청소년 현황 및 지역 정착 방안

오정은 |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벨기에 루뱅대학교(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정치학 박사
 법무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재외동포분과 위원,
 재외동포청 정책실무위원회 위원, 국내외 고려인 사회와 고려인의 국내
 정착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수행중이다.
 ✉ mouton3@hansung.ac.kr

국내체류 고려인 이해하기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체류 고려인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❶ 10년 전인 2014년에는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비록 추산이었지만,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무리는 없다.

2010년대까지만 하여도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이라는 단어는 일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는 용어였지만, 국내체류 고려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이제 고려인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전국 곳곳에 고려인 밀집거주지도 형성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고려인이 구 소련지역 출신 동포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 고려인이 다른 국가 출신 동포와 어떻게 다른지, 최근 국내에 고려인 인구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 왜 한국 사회가 고려인 동포를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내체류 고려인은 국적도 다양하고, 교육 수준과 직업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국내 고려인 사이에는 큰 틀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과거 선조가 슬픈 강제이주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은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와 재이주를 감행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과거 소련시대의 고려인들이 소련 내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성장한 오늘날의 고려인들은 거주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성공하는 삶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

❶ 2024년 8월 31일 기준 외국국적동포 국적별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43,030명, 러시아 38,571명, 카자흐스탄 22,739명, 키르기스스탄 4,204명, 우크라이나 3,372명, 투르크메니스탄 526명, 타지키스탄 477명이다. 이밖에도 다른 구소련 지역 국가 출신 고려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고려인 인구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체류 고려인 인구 수는 더 늘어난다.

가 출신 고려인들에게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 구소련 지역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과거 소련 시절 통용되던 러시아어 대신하여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등 지역의 민족어를 국어로 채택함에 따라, 러시아어를 사용해 온 고려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이에는 거주국의 주류 민족어를 새로 배우며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러시아어가 통하는 러시아를 향해, 러시아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한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을 향해, 그리고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수용하고 고려인을 동포로 포용하는 한국을 향해 이주하는 삶을 선택하고 실천에 옮기는 흐름이 조성되었다.

한국을 향한 고려인 이주 행렬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고려인의 국내 유입과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한민족 포용이라는 선한 동기를 넘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인구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를 더 하며, 고려인을 적극 포용하고 있다. 일반대중이 고려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더 붙어 살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체류 고려인 청소년 특성

국내체류 고려인들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E-9비자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지만, 고려인들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더라도 동포 자격으로 가족동반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한국에서 단신으로 생활하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달리, 고려인들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거주국보다 한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향도 있다. 고려인의 자녀 동반은 한국에 입국할 때 자녀와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취업을 위해 먼저 한국에 온 후 자녀가 뒤늦게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 안산, 광주 등 국내 주요 고려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고려인을 위해 고려인 자녀를 돌보는 놀이방과 유치원을 비롯하여, 학령기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었고, 이러한 고려인 자녀 지원 시설 덕분에 자녀를 동반하는 고려인들이 더욱 많아졌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고려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최근 국내체류 고려인 청소년 수가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유입 고려인 청소년은 동포로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대다수가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생활 적응에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고려인 지원 시설이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의 학교 문화도 낮은 상황에서 학업을 회피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에 정주하고,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사람이다.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국내체류 고려인 청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우리사회의 우선순위 당면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고려인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지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려인 청소년 지역 정착 지원

고려인 청소년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중앙정부나 민간단체도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실제로 크고 작은 사업을 발굴하여 전개하지만,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법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적합하고, 고려인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사업 전개가 어렵다. 민간단체는 예산 확보와 지속적 사업 전개를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인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고려인 청소년 지원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고려인 인구가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고려인 청소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차원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두 전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조례는 2013년 10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최초이며, 이후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6.02),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8.11),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9.04),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20.05),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21.04),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2021.08),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23.08) 등이 제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5.06)와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8.01) 등이 제정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려인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고려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이 항상 적극적인 고려인 지원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다. 조례 제정 이후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미진한 경우도 있다. 고려인 일반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정하면 사례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고려인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개발

국내체류 고려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실태 조사가 시행된 바 있다. 실태 조사는 전국 단위로도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을 통해 지역 단위로도 시행되었다. 조사에서는 자녀 수, 자녀 교육 방법, 자녀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곤 한다. 이에 더해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도 종종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참고한다면,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추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면, 고려인 청소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려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사회복지적 접근을 넘어 우리사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재개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에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한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한국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

PART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윤현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국내 고려인 정책과 차세대 지원 방안

남부현 |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교수

국내 고려인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영순 |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이슈 발굴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¹

윤현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육학박사(다문화교육 전공)
다문화사회 공존과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음
✉ hheey@kedi.re.kr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은 왜 필요하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나라는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 내 이주배경학생의 증가 및 밀집 현상 등으로 이어지며 교육 환경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책의 변화, 교육의 변화, 학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국가로의 이행에 앞서 다양한 구성원 간의 공존과 통합을 위한 교육적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주배경인구의 증가 현상은 이주민 밀집지역 형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이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슬럼화와 같은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학교 운영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닌, 추후 다문화사회에서 많은 지역과 학교 단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혁신 방안에 관한 탐색을 통해 미래 다문화사회 학교 운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생 100명 이상, 이주배경학생 재학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밀집학교로 분류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전체 학교 수가 1.57% 증가한데 비해 밀집학교의 수는 278.2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주요한 문제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

¹ 본 원고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윤현희 외 (2023)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해당 연구의 대상이 된 이주민 밀집지역과 소재 학교에 고려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자들이 다수 거주/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혁신 방안으로써도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본고에서 제안하는 학교 혁신 방안은 고려인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전략이라 할 수 있음.

학생 증가로 인한 교육 활동의 어려움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주배경학생 유형 중 외국인가정 학생이 증가하는 변화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년(2012년-2023년) 간 이주배경학생 중 국내출생자의 비율이 11% 이상 감소한데 반해, 외국인가정 학생의 비율은 13% 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 부모 국적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한국계)인 고려인 학생의 수는 6,713명(전체 이주배경학생 중 3.71%)으로 고려인 학생 통계가 시작된 2021년(3,975명, 전체 이주배경학생 중 2.48%) 이후 그 수와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부 교육 통계에 따라 집계된 다른 국가 출신 학생의 비율이 대부분 감소하거나 유사한 반면, 고려인 학생의 비율은 2년 새 1%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윤현희 외, 2023). 이를 통해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운영에서도 고려인 학생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고려인 밀집의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 전략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혁신은 모든 학습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며, 모든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 정상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의 관점: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전 세계적으로 이주배경의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사회 구조적 불평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박탈감, 정체성 및 문화 형성의 어려움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Granvik Saminathen et al.(2021)은 이러한 요인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적 통합과 심리적 안녕 측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국가에서 행해진 이주민가정에 대한 주거 분리와 같은 정책이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높은 가정의 아이들과 이주배경학생의 지역적 분리를 유도하여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주배경아동 및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그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방안은 무엇일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문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이나 집단 차원의 분리 현상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소외와 분리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 등, 구성원 간의 갈등, 다문화사회의 통합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 노동, 복지, 경제 등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적·사회문화적·구조정책적 측면이 다면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이주 사회로의 진입과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포괄적 지원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한다면,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 이주배경청소년은 연령에 맞는 발달 과제를 달성해야 할 ‘발달적 문제’뿐 아니라 ‘적응적 문제’에도 맞서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를 극복하고 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성장을 조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제라 할 수 있다(Suárez-Orozco et al. 2018: 783). 따라서 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이 학교 안에서 더 많은 수용 경험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장려해야 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사회 통합과 미래 기회 등 직업적 측면에서의 진로 개발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는 인구학적·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급격하게 증가한 이주배경학생의 위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송효준·함승환, 2021: 137). 그러나 지역사회 낙후로 인해 이주배경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자원이 제한됨으로써 교육 경험 전반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주민 밀집지역 내 학교 개선의 문제는 ‘사회 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송효준·김두섭·함승환, 2018: 136).

사회 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정책 문제에 접근한다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배적 정의, 문화적 정의, 그리고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학교 혁신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다.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분배적 정의는 ‘불평등’ 문제와 연결되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부분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 및 접근(Access)의 확대를 주요 요소로 한다. 형평성(Equity)의 가치 하에 모든 학생들은 ‘차별 없는 보편적 필요’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문화적 정의는 이주배경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던 ‘소외’와 ‘차별’의 문제와 연관된다. 문화적 정의의 키워드는 포용성(Inclusion)으로 포용적 교육의 원칙과 적용, 다양성 혹은 차이에 대한 ‘인정(Recognition)에 기반한 포용 실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소속감과 수용성 증대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절차적 정의는 ‘참여(Participation)’ 지향의 관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절차적 정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원칙, 이해 관계자의 참여 장려, 부모 교육 및 참여 증진,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발휘를 통한 교사 전문성 개발과 지역사회

회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이주배경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역할은 고려인 학생 및 그들이 밀집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고려인의 경우, 오랫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언어·문화적 차이가 크고, 고려인 밀집지역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내국인들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고려인 학생 역시 이주민으로서 교육적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고려인 밀집지역 내 학교에서는 고려인 학생 밀집으로 인한 내국인 학생의 역차별이나 입학 기피, 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윤현희 외, 2023). 따라서 고려인 밀집지역 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불리한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포괄적 접근법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의 학교 운영은 이주배경이라는 출신국이나 언어·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가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는 학교 운영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제안에 앞서, 밀집지역 학교의 현황에 대한 진단 및 개선 과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윤현희 외(2023)의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가 마주한 문제는 다음 [표 1]과 같다. 세부 내용은 이주민 밀집지역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밀집지역 학교의 혁신을 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② 윤현희 외(2023)에서는 고려인 밀집학교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대상 학교 내 고려인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려인 밀집지역 학교의 혁신 과제의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표1] 이주민(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과제

구분	이주민(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과제
학교 운영	•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다양화 등 강화 방안 마련 •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진로 지원 강화 •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유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 구축(예: 언어 서비스) • 이주배경학생 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예산과 자원의 확보, 개선 등 행정 지원 강화
교육 활동	• 이주배경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계획 수립 및 개선 체계 구축 •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계획 수립, 재구성 등 운영 체계 구축 - 한국어교육과정, 이중언어교육과정 포함 •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운영 체계 구축 •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체계 구축
학교 문화	•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 • 교사 전문성 등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교육 공동체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강화 - 학교 내 협력, 학교 간 협력, 학교-가정 협력,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

이상의 과제와 사회적 정의에서 추구하는 형평성, 포용성, 참여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전략을 연계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2] 이주민(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과제

교육 전략	혁신 방안(학교 운영 전략)				
형평성 (Equity)	학교 운영	학교 행정	학교 예산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공정한 예산 분배	
		학교 자원	학교 자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교육 지원	적응 지원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다양화
			정보 접근성	정보 전달 체계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강화
포용성 (Inclusion)	교육 활동	교육계획 수립 및 개선	교육 수요자 의견 수렴 체계	교육계획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이주배경구성원 의견 반영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이중언어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보			
		수업		맞춤형 수업 체계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평가	맞춤형 평가 체계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참여 (Participation)	학교 문화	관리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경영	
		교사 역량	인사 및 업무분장	교사 역량을 고려한 인사 및 업무분장	
			교사 전문성	교사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교육 공동체	학교 내 협력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내 협력 체계	
			학교 간 협력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간 협력 체계	
				이주배경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학교-가정 협력	이주배경 가정 지원 확대		
		학교-지역사회 협력	학교와 지역사회와 간의 협력 체계		

혁신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분배적 정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언어·문화적 차이 등 불리함을 고려한 교육 기회와 학교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강조하며, ‘모두가 동등한’ 평등이 아닌 불리한 학습자에 대한 기회 및 자원 제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형평성(Equity)을 강조한다. 둘째, 교육활동에서는 문화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문화적 정의는 이주배경학생의 차이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형태의 포용(Inclusion)적 교육 실천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주배경학생이 갖는 언어·문화적 불리

함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수업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 문화 측면에서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적 정의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 실현을 위한 기반 요소로써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참여(Participation)와 이주배경학생 교육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은 비단 고려인 밀집학교의 교육에서만 필요한 방법이 아닌, 사회적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교육적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든 학교에서, 모든 대상에게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연구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edi.re.kr>) - 연구사업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문헌

송효준·김두섭·함승환(2018).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가 이주배경학생 및 비이주배경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1(1), 133-150.

송효준·함승환(2021). 이주민 밀집지역 내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정도는 어떤 학교에서 높을까? 학교장의 문화감응적 리더십의 중요성.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135-153.

윤현희(2024).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혁신 과제 및 전략. 교육개발 봄호(웹진)

윤현희·김경애·김나영·이동엽·이정우·이희현·이재창·홍미영(2023).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Granvik Saminathen, M. Lofstedt, P. & Laftman, S. B. (2021). Classroom Immigrant Density Predicts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With an Immigration Background: Findings From the 2017/18 Swedish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6, 647380.

Suárez-Orozco, C. Motti-Stefanidi, F. Marks, A. & Katsiaficas, D. (2018). An integrative risk and resilience model for understanding the adaptation of immigrant-origin children and youth. American Psychologist, 73(6), 781-796.

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 고려인 3,000명 정도가 국내 입국한 것으로 추산된다.^③

고려인(高麗人)은 한민족 정체성과 혈통을 지닌 우리동포로 1991년 구소련 붕괴 이전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국내 「고려인 동포법」(2010년 5월 20일 제정)에 따르면, '고려인은 1860년 초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시기 동안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 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초기 고려인은 조선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빈곤과 가난 그리고 탐관오리의 학정과 착취를 벗어나고자 연해주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피해 또는 국가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다수의 조선인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며 그 수적인 증가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1937년 러시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려인 17만 2,000여 명이 갑자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주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동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한 채 겨우 한민족 정체성만 유지한 채 살아 남았다. 고려인은 160년간 1-5세대를 거치며 여기에서 저기로 이주-강제이주-재이주의 디아스포라 삶을 살면서 나라 잃은 조선인도 남한이나 북한 사람도 아닌 과거 고구려와 고려인의 후예로 남고 싶어 스스로를 고려사람으로 구분하였고, 러시아에서도 이들을 '카레이츠(Корейцы)'라고 부른다. 고려인들은 낯선 구소련 연방지역의 타국에서 러시아어를 익히며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교육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며 인정받는 집단이 되었다.^{④⑤}

하지만,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국어 부활 정책과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며, 러시아어만 사용하던 고려인들은 취업과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고, 낯선 거주국 언어를 새롭게 배우며 정착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하였으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고려인들은 마음의 고향이자 선조들의 모국인 발전된 한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며 귀환하게 되었다.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세대를 걸쳐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 온 고려인의 정체성은 다른 한민족 동포나 이주민들의 정체성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 고려인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여기와 저기에 모두 속하는 경계인으로서 다중적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간다.^⑥ 하지만, 우리는 국내 거주 고려인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적 지원 시스템도 미약한 상황이다.

재한 고려인 관련 정책

국내 고려인 동포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정부가 2004년 중국의 조선족과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을 포함하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

- ③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4. 04. 30).
- ④ 김호준(2013).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주류성, 17쪽
- ⑤ 김 게르만(2013), 나는 고려사람이다. 서울: 국학자료원, 27-28쪽
- ⑥ 김기영(2019). 고려인 고학력 여성의 초국가주의적 선택과 전략: 이주와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3(2), 45-79.

국내 고려인 정책과 차세대 지원 방안

남부현 | 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교수
(대학원: 다문화·디아스포라 전공)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가족교육학 석사, 아거시대학교 교육학 박사
초국가적 이주시대 다양한 이주민과 가족의 삶을 연구하며,
한국사회 내 모두를 위한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 발전을 추구한다.

✉ namx0015@summoon.ac.kr

한국의 다문화사회 미래를 위하여

초국가적 이주시대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지난 30년간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며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24년 7월 말 현재 총 263만 9,521명으로 전체 인구의 5.8% 이다.^① 국가 차원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소와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180여 개국 출신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과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하며 문화일원론적 관점을 가진 일반 한국인들의 사회다. 이에, 국내 다양한 이주민과 일반 한국인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미 국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며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은 일반 한국인의 노력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영역에 준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②

고려인은 누구인가?

한국사회 내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으로 고려인은 2024년 4월 기준 총 11만 명을 넘어섰고, 우즈베키스탄, 한국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기타 국가 순으로 많다. 최근, 러

- 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7월 30일 기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IMkYyMjclMkY1ODY0Nzcl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l2YmJzQ2xTZXEIM0QIMjZyZ3NFbmk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lM0RmYWxzZSUyNnBhZ2UIM0QxJTl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IMjZzcmNoV3JkJTNEJTl2>
- ② 남부현, 박미숙(2022).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태체계 속 삶의 적응 모습: 지역사회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83-120.

고, 2010년 「고려인 동포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 3월 23일 개정한 「고려인 동포법」은 국내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6개 주요 사업^㉗을 제안하였다. 2007년 도입된 특별고용허가제인 ‘방문취업제(H-2 비자)’는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들에게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며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방문취업제’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비자로 입국과 출국, 체류기간, 취업 분야에 대한 우대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다.^㉘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9개 시도(2022년 1월 기준)는 고려인 주민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거주 고려인들은 재외동포(F-4), 영주 비자(F-5), 방문 취업(H-2), 방문 동거(F-1), 단기 방문(C-3-8) 등의 비자를 소지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고려인의 정주화 및 동반 이주가 증가하며 고려인 아동과 청소년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㉙ 이주배경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국공립학교, 여성가족부 산하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에서 주로 한국어 교육, 진로 지도, 상담 등이 제공되고 있다.

국내 거주 고려인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단독 유형’ 또는 ‘부부 유형’에서 ‘성인 부부와 자녀 유형’ 또는 ‘성인 부부와 자녀 그리고 조부모 유형’이라는 다세대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 비자(F-4)와 영주권 비자(F-5)를 소지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미성년 자녀 그리고 노부모를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재결합 사례가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다.^㉚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2019)을 통해 고려인에 대한 한시적 규제 조치로 비자 발급 기간을 연장하고 고려인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는 국내 초·중·고등 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 동포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동시에 자녀가 국내에서 학업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이들의 부모 역시 체류 자격을 보장함으로써 고려인을 비롯한 동포들의 정주 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㉛

고려인 디아스포라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삶을 살아낸 과거 고려인들은 1-3세대 동안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어만 사용하며 한국과는 분리된 채 살았다. 이후, 고려인 4-5세대는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성장하며 러시아어 사용보다는 출신국가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자녀와 부모 간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고려인에게 가장 큰 문제

- ㉗ 1. 고려인 동포의 실태 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 기술 교육 등 교육 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㉘ 남부현, 박미숙, 박민희, 임형백, 차용호, 최희, 황영애(2023). 이민정책론, 법문사.
- ㉙ 우복남(2022). 충남 고려인 주민 이주 현실과 지원 정책, 충남여성정책연구원, 34-43쪽.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만든 9개 지자체 : 광주광역시(2013년 10월 제정, 2019년 7월 개정), 경기도(2016년 2월 제정), 인천광역시(2018년 11월 제정), 경북(2019년 4월 제정), 경남(2020년 5월 제정), 전북(2021년 4월 제정), 충남(2021년 8월 제정), 경기도 김포시(2015년 6월 제정, 2020년 9월 개정), 경기도 안산시(2018년 1월 제정). 고려인 주민 지원 주요 내용: 1) 실태 조사, 2) 한국어 등 교육 지원, 통번역 등 편의 제공, 3) 처우 개선,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 4) 집중 거주지역 거주환경 개선, 5)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6) 모국문화, 예술문화 활동, 7) 의료 지원, 8) 지원센터 운영: 고려인 단체 지원 및 지원 단체의 지원, 9) 자녀 돌봄, 영유아 보육 지원, 11)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 ㉚ 김경학(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가족 유형의 성격: 광주광역시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학(2015). 디아스포라연구, 9(2), 37-67.
- ㉛ 홍정민(2022). 국내 거주 고려인 아동의 정체성과 어울림 양상: 충남 A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는 언어다. 세대별로 다른 디아스포라 삶으로 인해 모어(Mother language)와 모국어(Native language)가 다른 고려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설명할 수 없다^㉜.

한국 거주 고려인은 이주-정착-재이주-정착-?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며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다. 1세대는 연해주로 이주했고 2세대는 연해주에서 태어난 고려인인데 1937년에 강제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3세대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1991년 구소련 해체 시기를 경험하였고, 한국으로 귀환하여 출신국가와는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4-5세대는 어린나이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하는 3세대의 자녀나 손자녀들이다. 이처럼 대부분 고려인들은 자신의 출신국 또는 모국과는 떨어져 살아왔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 3-5세대는 한국어 소통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고려인의 정체성은 세대별로 다양하고 특별하며, 한국으로의 이주 목적과 이유에 있어서도 세대별로 노동, 돌봄, 교육 등으로 다르다^㉝. 그동안 고려인은 온전히 출신국이나 모국에 소속되지 못한 채 다국가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른 삶의 생태체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기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㉞.

고려인은 생활문화 전반에서도 일반 한국인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한국문화와 러시아 슬라브계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거주한 중앙아시아 출신 국가의 문화가 융합된 현재 고려인의 생활문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고려인은 혈통을 유지하여 일반 한국인과 비슷한 생김새와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인과는 다른 언어를 쓰고 변형된 러시아식 한국음식을 먹으며 고려인들끼리 모여 밀집 거주지역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 3세대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저렴하며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모여 산다^㉟.

이주자의 정체성에 관심을 둔 사이드(Said)는 “경계인(The marginal)은 두고 떠나온 것과 지금 여기의 현실이라는 두 차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설명한다. 즉, 경계인은 이중적 관점으로 사물을 관찰하므로, 이들에게 사물은 고립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 이주자는 새로 정착한 국가의 광경이나 상황을 필연적으로 이전에 살았던

국가에서의 그것과 비교하며, 그 위에 새로운 경험을 덧칠한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에게 중요한 것은 중첩된 관점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경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그 경계를 넘어선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 다층적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보다 더 넓은 세상을 관찰하고 조망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경계에 선 ‘디아스포라’임을 강조한다^㊱.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 거주 고려인도 ‘여기’와 ‘저기’ 동시에 속하며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다. 고려인의 정체성은 ‘민족, 국가, 디아스포라’라는 3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㉜ 심지은(2019).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고향 신화를 중심으로. 中蘇研究(중소연구), 43(1), 241-269.

㉝ 니끼찌나 울리아(2019). 한국에서의 고려인 귀환 이주와 집단 거주지 연구: 안산시 땃골 사례 분석.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사회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㉞ 심지은(2019). 상동

㉟ 남부현(2020) 러시아어권 중도입국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한국어 교사의 경험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77~108.

㊱ 심지은(2019, 261)에서 재인용: Said, E. W. (1996).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the Reith Lectures. Vintage books. p. 60.

어느 하나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다층적 다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과거에 단순히 출신국과 거주국만을 구분하는 이중 정체성으로 인해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고려인은 다층적 다중적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며 초국가적 이주시대 한국과 출신국가를 오가며 더 나은 디아스포라 삶을 기대한다.¹⁷ 따라서, 고려인을 디아스포라 경계인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과 자질을 과거 선조 고려인들이 그러하듯이 거주국이며 한민족의 고향인 한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과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고려인 청소년 지원 방안

뱅크스(Banks, 2015)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 정체성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 단계인 다문화적 세계시민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중적 그리고 다중적 정체성 형성 단계를 거쳐 소속된 공동체의 문화, 언어, 가치에 대해서 명료하고 사려깊은 애착심을 지니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성찰적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¹⁸ 또한, 많은 학자들은 다문화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2-3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이중 또는 다중의 문화 정체성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면 문화 적응이 더욱 유연하며 학업 성취도가 높고 사회문제 발생도 줄어든다는 결과들을 내놓았다.^{19,20}

하지만, 현재 한국의 학교교육 환경은 이주배경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사용만을 강조하고, 교육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들의 교육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주류집단으로부터 이주배경학생들은 결핍된 존재로 인식되며,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다. 현재 한국사회 내 4-5세대 고려인 청소년들은 러시아어나 출신국가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공부는 흥미를 잃고 학습 결손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부모님의 언어인 러시아어 활용 능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²¹ 국내 고려인 4-5세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출신국에 따라 나뉘는 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대상화된 고려인으로 인식하며, 스스로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경험한다.²²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려인 후손인 청소년들이 한국과 출신국을 동시에 아우르는 다문화적 세계시민 정체성을 발달시키며 다층적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고려인의 장점과 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발전한 선조의 고향인 한국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음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의 다층적 다중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이들이 스스로 고려인으로서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계 고려인으로 성장하도록 초국가적 디아스포라 삶을 열

¹⁷ 심지은(2019). 앞 페이지의 16번과 동일

¹⁸ Banks, J. A. (2015).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 Routledge.

¹⁹ 남부현, 정은주(2018). 미국 거주 한국인 “모”의 자녀와 한국문화 소통(疏通)과 전승(傳承)에 관한 경험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7(4), 4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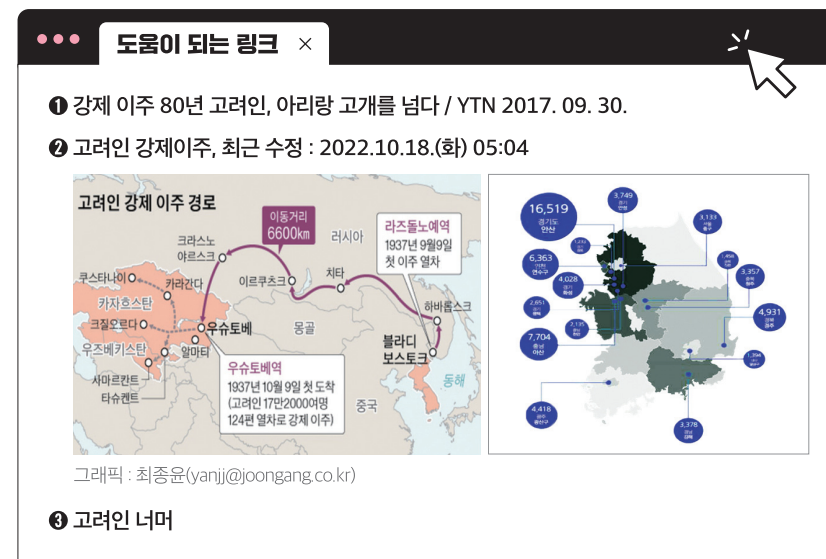
²⁰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6/E: Theory and Practice. Pearson Education Inc.

²¹ 남부현(2020). 상동

²² 남부현, 박미숙(2022). 상동

어놓고 이들의 진로와 취업 설계를 지원하며 미래 인생 플랜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려인 밀집거주 지역 내 학교 밖 고려인 청소년들의 생활, 교육, 건강, 취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이며 단계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제공이 중요하다. 넷째, 고려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부모교육과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섯째, 고려인 아동과 청소년은 출신국, 이주시기, 이주배경이 다르므로 개별 맞춤형 교육과 1:1 멘토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있다. 여섯째, 초국가적 이주민이 증가하는 한국사회에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감소하고 공존의 다문화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초국가적 이주시대,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우리의 역사다. 과거 선조 고려인의 정체성과 우수한 자질을 물려받은 고려인 미래세대가 자신의 뿌리인 한국인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강화하고 잠재적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고려인의 다층적 다중적 정체성은 한국은 물론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담보한다. 미래세대 고려인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더하며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의 다문화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일이다. 



국내 고려인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영순 | 대한고려인협회장 / 언어학 박사 / 인천대 초빙교수
 국내 11만 고려인의 대표 조직인 대한고려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인천대 초빙교수로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 관심 분야는 고난의 디아스포라로서 고려인의 국내 정착과 건강한 시민으로의 통합입니다. 특히 이중언어교육 강화를 통한 이주민 미래세대 교육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koresaininkorea@gmail.com

서론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청소년들은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과정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1937년 스탈린 정권 아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후, 오랜 시간 동안 현지 사회에 적응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많은 고려인 청소년이 부모들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교육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현황과 문제점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다각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이들의 학업 성취도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은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려인 학생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 성과에 직접적인 저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고려인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서는 비한국어권 학생들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80~9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한국어 학습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며, 이는 비단 비한국어권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❶ 2018년 12월 창립한 국내 11만 고려인의 대표 조직이다. 안산, 인천, 천안, 청주, 경주, 광주 등 전국 10여 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2017년 9월 17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안산, 인천, 광주, 경주, 천안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지역 대표 140명이 경기도 안산에 모여 개최한 고려인 만민회의를 계기로 고려인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결성되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려인 권익보호, 전국 각 지역 고려인 공동체 강화, 고려인 미래세대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 역시 고려인가정의 교육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가정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종종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조기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려인 자녀들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치원 준비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준비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고려인가정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므로, 자녀 2, 3명의 높은 유치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려인 자녀가 충분한 교육적 준비 없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이것은 이들의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중언어 강사 문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를 배경으로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알림이나 문의 대응, 통역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강사들이 겪는 어려움 역시 상당합니다.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중언어 강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중언어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며, 이는 다문화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근무 시간(하루 3시간 이하)과 보수의 제한은 강사들의 지속적 근무를 어렵게 만들어 이중언어 교육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및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고려인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고려인 학생이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의 자존감과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고려인 학생들을 학습 능력 부족으로 인식하여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약화시키고 교육적 성취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의 차이 역시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 방식과 상당히 다른 교육 체계를 경험하며, 이에 따라 수업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동기를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정책 당국의 적절한 지원과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려인 청소년 교육 상황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제안

한국 내 고려인 청소년이 직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와 제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 강화 고려인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아, 학업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한국어권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이해하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언어 능력 평가를 시행하고,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충분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많은 고려인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유치원 과정을 지원하여 모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출발선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중언어 교사 지원 및 양성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학생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방식입니다. 이들 이중언어 강사가 수업 시간 중에 통역과 학습 보조교사의 역할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이중언어 강사가 전문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들의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해 다문화 교육에 적합한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 개선 및 인식 변화 고려인 학생들이 학업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차별적 태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도입과 엄격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과정 적응 지원 중앙아시아에서 교육받은 많은 고려인 학생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크게 다른 교육 방식을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을 존중받고, 그들의 경험이 학습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 있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교육 경험 도입 이민자와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성공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의 통합과 학업 성취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도입한 ‘CLIL(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교육’ 방식은 언어와 학습 내용을 동시에 교육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습과 언어 습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LIL 방식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모국어와 다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학습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선진적인 교육 모델을 참고하여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과제들은 한국 내 고려인 청소년이 직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론

한국 내 고려인 청소년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언어적이고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의 성공적인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청소년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입니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느끼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받으면서, 한국어와 교육 과정을 동시에 배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상호문화주의는 이러한 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또는 언어적 배경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육 시스템이 모든 청소년,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지원 확대, 재정적 지원 강화,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교사의 편견 극복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청소년의 권리, 즉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려인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학업 성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그들의 필요가 존중되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육 시스템은 고려인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학습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국내 고려인 청소년 적응 과정과 과제

하이웃이주민센터 - 경주시

김조훈 센터장

(사)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 김해시

안윤지 소장

국내 고려인 청소년 성장 사례(1)

*지영

국내 고려인 청소년 성장 사례(2)

유가이 스테판(재외동포청 상담 실무관)

현장 리뷰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고려인 청소년 적응 과정과 과제

김조훈 | 하이아웃주민센터장
10년 동안 하이아웃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특별히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경주 지역에서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boy1601@hanmail.net

경상북도 경주의 고려인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2024년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인구는 이미 12만 4,000여 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9,200여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손꼽힐 정도로 고려인들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❶ 경상북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주 지역으로 경상북도 전체 고려인의 40%가량이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❷ 경상북도에 서도 특별히 경주 지역에 유독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박신규, 이채문(2021)의 기초연구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상황과 경주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맞물려 그들이 경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이후 가족 연쇄이주를 통해서 서서히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❸

이러한 가족연쇄이주를 통해서 경주 지역에 고려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문제는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중도입국을 한 이주배경을 가진 고려인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주 지역에서도 고려인들의 밀집 거주지로 잘 알려진 성건동을 학군으로 두고 있는 홍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내 다문화학생의 수가 2016년 25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49명으로 불과 8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으며, 그 249명 가운데 220명(88.4%)이 러시아계 학생으로 전체 홍무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60%가량이 고려인 자녀들이나 것으로

- ❶ 2023년 국가통계포털(KOSIS, 2023)에서 외국 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을 통해 볼 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인천, 충남, 충북, 경남에 이어 6번째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경상북도였다.
- ❷ 2024년 6월 30일자 기준 출입국 통계월보 기준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9,200여 명 가운데 4,018명, 대략 40% 정도의 비율이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❸ 박신규, 이채문, (2021), 귀환이주자로서 고려인의 지역사회 생활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 경주시 성건동 거주 고려인을 중심으로 - 디아스포라 연구, 15(2), 47-88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24년 홍무초등학교의 신입생 54명 가운데 49명(90%)의 고려인 자녀들이 입학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고려인 자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건동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성건동 인근 지역을 학군으로 하는 월성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에도 고려인 자녀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❹ 있으며,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고려인 중고등학생들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❺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2023년~25년까지 다문화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홍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 고려인 자녀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기초학습 부진^❻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데, 이는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 학습을 하지 않은 채로 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려인과 한국인 간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홍무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분위기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특별히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있다(2023년 홍무초등학교 연구보고서).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주 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한국어 교육 전문 공립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마다 위탁생을 받아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11개국 총 225명의 초중학생들이 거쳐갔는데, 그 중 92.6%가 고려인 학생들이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센터도 고려인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에서 레인보우스쿨의 시작과 6년간의 여정

사실 이러한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가 잘 되지 않아 기초학습 부진으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는 경주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전국에 고려인들의 밀집 거주지라고 하는 안산, 인천, 광주, 천안, 김해 등의 지역에서도 증가하는 고려인 청소년들로 인

해 밀집 거주지를 학군으로 둔 초등학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 수립이 계속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하이아웃주민센터에서도 지난 6년 동안 경주 지역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지원을 받아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고려인 이주배경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적응과정과 어려움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본 기관에서 2019년 처음 레인보우스쿨을 통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학습”이었다. 일단 그

- ❹ 월성초등학교는 2024년 1월기준 외국국적 고려인 학생의 수가 전교생 191명중 78명(48%)이다. 월성초등학교는 2024년 신입생 24명 중 15명(62%), 계림초등학교는 신입생 20명 중 14명(70%)이 고려인 자녀다.
- ❺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에서도 이주배경 학생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7년새 5배, 고등학생은 2년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42명에 불과했던 이주배경학생이 2023년에는 314명으로 2년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❻ 2023년 홍무초등학교 진단평가 결과 외국인 학생 중 90.8%가 기초학습 부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2023년 홍무초등학교 보고서).

들이 한국어 학습이 되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입국 초기 학교로 진학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학습에 많이 집중했다. 실제로 초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절대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때 한국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한국어 학습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다만 그냥 부모를 따라와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상담 지원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절대 다수가 되어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학교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언어적인 문제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한국어 학습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어 학습이 잘 되지 않으니 당연히 다른 교과목이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진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유사하게 교육열이 강해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어가 잘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지역마다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여러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대체로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대안학교의 형태다. 대안학교의 형태는 결국 그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러시아어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한국어로 운영하는 대안학교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검정고시를 치거나, 러시아의 모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사설학원의 형태다. 사설학원의 형태는 말 그대로 한국의 종합단과 학원과 비슷한 형태다. 차이가 있다면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향상과 이를 통해 한국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일단 대안학교와는 달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력은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학원비가 비싼 편이어서 입국 초기에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편이다.

세 번째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형태다. 이러한 형태는 한국의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와 비슷하게 학교 수업 이후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다. 한국어 학습, 특기 적성 활동, 상담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간식 제공 등을 통해 정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교 학습을 보충하기도 한다. 대체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향상보다는 학생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학습을 보충하고 학습에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초등생 방과후 수업



중·고등학생 토크 수업



중·고등학생 진로 교육



[그림1] 하이아웃주민센터 고려인 청소년 지원 활동 사진

위의 3가지 형태 가운데 현재 하이웃이주민센터는 6년째 레인보우스쿨을 운영 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교실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사설학원과 돌봄의 형태를 섞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로 진학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중·고등학생도 처음에는 방과후 돌봄 형태로 시작을 했으나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고등학생들의 필요가 초등학교의 필요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지금 현재는 중·고등 학생들은 진학을 위한 토픽 교실^❶과 진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5명, 중·고등학생의 경우 15명이 참여하는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책적인 제언

이에 지난 6년 동안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경험한 고려인 청소년의 적응 과정과 그에 따른 기관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고려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외국인 쿼터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말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밀집도가 높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학군으로 두고 있는 경우만이라도 단일 문화권의 외국인 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 기관에서도 6년 동안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단일 문화권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보다는 단일 문화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나 성취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일선의 교사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나 쿼터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섬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쿼터제 대신에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초고밀집도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의 정원을 15명까지 감원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❷ 물론 학급의 인원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학급의 학생 수를 15명까지 줄이더라도 과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는 고려인 자녀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 두고 돌봄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고려인 자녀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❸ 우측의 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류로 나뉘지만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는 “외국인 가정”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❶ 경주 지역의 경우에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중학생이 토픽 공부에 필요한 지역이다.

❷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는 글로벌 인재[꿈꾸는 경기교육](경기일보 2023년 9월 9일 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07580271>

[표1]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유형^❹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가정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따라서 고려인 자녀와 가족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진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의 저소득층과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실제로 본 기관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이주배경을 가진 초등생의 경우에는 잠깐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학습 지원보다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2023년 경기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 미등록 자녀 등이 다문

화가정학생에 포함되지 못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배제가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화가정학생(이주배경학생)”으로 병기하여 그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❺ 이제는 외국인가정 자녀들도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형태로는 영주하는 형태로 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❹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다문화가족법)[시행 2020.5.17.] 2조에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❺ 다문화교육포털 <https://www.edu4mc.or.kr/guide/typeStat.html>

❻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는 글로벌 인재[꿈꾸는 경기교육](경기일보 2023년 9월 9일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07580271>

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이주 사회 적응 실태

먼저, 고려인 청소년들의 입국 초기 상황을 들여다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모와 자녀의 입국 시기가 매우 달랐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고려인 부모들의 이주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적으로 고려인 동포의 공동체 공간이 형성되고 지금껏 이주국에서의 낯선 환경에서 정착해 가야만 했던 심리·경제적 어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고 있다. 또한 부모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교육 체계 및 진학 등 자녀를 위한 교육 정보가 공유되면서 자녀들의 진학 및 진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입국 초기 언어 활용 능력의 미숙함과 다양한 과목을 접해야 하는 한국의 교육 체계는 자녀들의 학업·교우 관계 등 학교 생활 적응에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입국하는 고려인 자녀들의 학교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체류 자격과도 연결된다. 결국 교육의 사각 지대로 전락하는 학교 밖 고려인 청소년들의 체류에 대한 불안정성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다음은, 고(高) 학령기에 입국하는 미성년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제도권 진입 및 진학·진로 현황이다. 취학 거부, 학교 부적응 중도 탈락 자녀들이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아 자신들의 본국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그들만의 게토화^❶가 진행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언어 구사력의 한계로 인해 교육제도권 편입 및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설계는 진학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실용과 실무를 기반으로 직무 교육을 통한 진로 문제, 즉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 훈련 교육기관과의 연계다. 최근 교육제도권 밖 미성년 자녀들이 진학보다는 취업으로의 진로 선택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은 이를 대변한다. 지역적 한계로

필자가 있는 이곳은 아직 고려인 자녀들의 직업 훈련기관 연결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기에 연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❶ 게토(Ghetto)는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종교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준별 한국어 수업



고려인 청소년 상담

김해시

귀환(歸還)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19세기 후반 기근, 항일 독립 운동을 위해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나 후손들의 가족 단위 입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 재혼가정 자녀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들의 점진적인 감소에 비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하는 러시아 언어권 고려인 청소년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고려인 동포 배우자와 자녀의 시차적 입국은 물론 동반 입국하는 가족 단위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주화 가능성은 크다. 이는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은 동포들의 영구적인 정주와 맞물려 미래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기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자체 및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고려인 청소년 교육 및 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이주 역사가 해를 더해 가면서, 이제는 언어 교육에 집중하던 시기를 지나 입국 시기, 언어 능력, 학령, 제도권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이들의 인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직업 교육으로의 진로 설계 등 다각적인 교육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다년간 다문화 현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이주 배경과 이주 과정, 가정과 학교 사회, 나아가 이주 사회 적응과 정착 과정을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다양한 현장 다문화 연구기관들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현장을 함께하며 이를 발판으로 한 더욱 체계적인 교육 환경적 변화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 청소년들의 이주 사회 적응 실태와 이주 사회 적응 및 정착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덧붙여 좀 더 실효

인문지 | 글로벌다문화연구소·동포지원센터 / 기아글로벌센터 대표
글로벌다문화학과 석·박사를 취득한 후 다문화 관련 인제 양성관과 법무부
외국인 정책 실무위원으로서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주사무소에서는 국제결혼, 이주 근로, 난민, 유학생의 교육 및 체류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본사무소 동포지원센터에서는 고려인과 조선족
등 귀환 동포 및 자녀들의 교육·체류·취업 등 동포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 실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gdream1364@daum.net

또 다른 고려인 청소년들의 부정적 사회 적응 실태는, 고려인 동포들의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심리·정서적 부분이다. 긴 이주 과정과 정착 과정에서의 가족 해체 및 새로운 가족의 형성에서 비롯되는 갈등, 심리·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녀들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정서적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정립은 물론 학업 및 교우 관계까지 재정립해야 하는 정서적 무게감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 기반인 부모의 장시간 노동시간에서 비롯되는 대화 단절, 동생 돌봄이나 집안일 수행,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부모님들의 잦은 언쟁 및 갈등은 사춘기로 접어드는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서적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주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연구, 발전해 가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덧붙여 보고자 한다. 한국태생 고려인 자녀와 저 학령기 입국 자녀들의 경우 한국 언어의 활용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제 이들에게는 한국 언어 집중교육을 넘어 고등교육으로 진학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선주민 자녀들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 한국 교육 커리큘럼에 맞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제도권에서의 언어 외 타 교과목 수업 프로그램으로는 선주민 자녀들과 어깨를 견줄 수 없다. 지금껏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다양한 교과교육의 보충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고려인 청소년들의 정주화는 잠시 머물다 갈 잠깐의 이웃보다는 우리와 함께 미래를 펼쳐갈 역군으로 키워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조상의 땅으로 귀환(歸還)해 오는 동포와 자녀들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성공이 우리 다문화사회의 성공을 기약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영어 수업(특성화 교육)



직무 교육(제과제빵 특성화교육)

고려인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지원 사례 및 실천 방안

다음은, 필자의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재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 부분이다. 본 기관은 교육청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레인보우 스쿨, 지자체 프로그램과 기관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입국 초기 수준별 언어 교육을 발판으로 한국문화 및 한국 사회 이해, 체험 특성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의 꿈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과 고(高) 학령기 자녀들의 진로 탐색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 학교, 폴리텍대학 등 자격증 취득·취업이 직접 연계되는 현장 교육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고려인 청소년의 고등교육 진학을 위해 지금의 학교 교육 시스템과 언어·문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과목에 대한 방과후 학습 보충과 토익 및 검정고시 대비 과목 등 확대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상담 부분이다. 입국 초기 편입학 과정에서부터 방과후 보충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정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교육 제도권으로의 진입 및 취업 정보 등 교육 관련 상담 부분이 주를 이룬다. 게다가 초기 학령기 자녀들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교우 관계, 학교폭력, 성범죄, 약물과 게임 중독 등 청소년 안전 관련 예방 및 불안, 우울, 자살 충동 예방 교육 등 심리·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기회를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

끝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현장에서의 사회 적응 실천 방안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고자 한다. 필자의 기관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불안·우울 및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실천 과제로 가족과 친구,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상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자녀의 학습 지도 및 공교육 시스템에 관한 정보 공유, 부모 자녀 간 상시 대화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학교 담임선생님과 의 학생 정보 공유,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고려인 청소년들의 현장 실태 정보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국 시기와 이주 배경, 교육 지위, 가정환경 등 고려인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학 및 진로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이제 고려인 동포와 자녀들은 선주민인 지역주민과 함께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크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국으로 귀환(歸還)한 고려인들에게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곳을 영원한 안식처로 만들어갈 의지를 불어 넣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힘겨운 오늘의 역사와 미래의 안정적인 정착은 머지않은 날에 한국 다문화사회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이란 확신도 가져 본다. 나아가 세계를 품는 세계시민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력도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

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민족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기초(1급 수준)밖에 안 되었고, 그것도 주로 학문적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반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을 딸 수 있었고, 2015년 3월에 저는 한국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 학생은 저뿐이었습니다. 한국인 반친구들은 처음에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할 때 여전히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부족한 언어 실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수업 시간 전후로 교과서를 보면서 내용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고 사전을 활용하면서 러시아어로 해석을 썼습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했지만, 처음에 국어와 문학에 집중하였고 국어 성적을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 고등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시즌이 찾아왔고, 저는 여느 고3 학생들처럼 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은 정보들을 토대로 저에게는 외국인 전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해당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며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해가며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갔고, 한국어능력시험 6급 자격증과 몇 번이고 수정하며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말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전공 수업 때는 어려운 학문 용어들로 인한 언어 장벽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특히 저희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 덕분에 어려운 용어들도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저와 같은 고려인 친구들도 사귀어 수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외국생활의 어려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며 친해졌던 외국인 친구들과 지금도 절친한 친구들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3개월 정도 구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무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취업할 만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회사 면접을 다니면서 저를 꼭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고, 일하는 직무는 해외 영업입니다. 제가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3개 국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입사할 때는 물론 일하면서도 큰

10년 만에 한국 정착에 성공한 고려인 3세

*지역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3세입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넘었으며,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donji1998@gmail.com

자기 소개

저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3세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인들은 러시아말로 이야기할 때 자신을 '카레이스키(러시아어로 한국인)'라고 부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국어로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 저의 민족이 한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민족 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고려인 친구들과 한국에서 온 한국인 친구들도 많았고, 학교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친오빠가 먼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다 한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모님도 오빠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에서 벌이(취업)하는 것이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시기는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로 들어가기에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기에 반년간 한국어를 공부한 다음에 실력이 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반년간 한국어 자습도 많이 했지만, 외국인센터에도 다니면서 센터장님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 한국어 실력을 좀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살았던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입니다. 그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꽤 있는 지역이었지만, 외국인 학생은 2-3명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센터에서도 외국인 아이들(유치원생)과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다니셨지만 저와 같은 중·고등학생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센터에 봉사하러 오는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해야 하고, 밖에 어디에 가든 한국어를 써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니까 처음에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하였지만, 이로 인해 한국어를 더 열심히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면서 저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이다 보니 처음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1년 동안 많이 배우고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해졌습니다. 근무한 지 2년 차 되는 해에는 승진도 하였는데, 그때 제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과 비슷한 고려인 음식을 먹어왔고 한국으로부터 비롯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에 왔을 때 문화 차이를 크게 느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치 문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 이상으로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순조로운 의사소통의 요소로 작용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단호하고 직설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생활하면서 수직적 문화에도 적응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으며 드라마와 같은 매체에서도 이런 문화를 접했음에도 직접 경험을 했을 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 있는데도 상사의 말에 무조건 수긍해야 하고,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바로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노력했고, 때로는 눈치라는 것이 한국인의 특별한 배려 문화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러시아보다 한국에서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고 이제는 한국 환경이 저에게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만에 러시아에 다녀왔을 때 러시아가 저에게 더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16년 만에 저의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고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증조부모님께서 고향을 왜 그렇게까지 그리워하셨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제안 사항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외국인 지원센터에 다녔습니다. 되돌아보면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저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외국인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선생님과 자원봉사 학생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보다 더 쉬운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신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도 그들의 말을 알아들 수 있었으며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처음에 제가 도움을 받은 외국인센터에서 저도 자원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려인 후배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초중급 한국어를 알려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이 또한 저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미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되고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여 학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점점 많아지는 고려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센터와 같은 교육 기관에 먼저 지원을 해야 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학생들과 달리, 고려인 학생들은 일반 학원에 다니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한국어 실력도 부족하여 일반 학원에 다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고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대학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같은 학과의 선배로부터 다방면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학업에서든 생활에서든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 저는 선배에게 연락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잡고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선배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여러 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에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 친구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같은 고려인끼리만 친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친구들끼리 러시아어로만 소통하게 되고 한국어가 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배와 이어줌으로써 고려인 친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 및 학교 생활에 있어 실용적인 조언을 받고 한국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 어렵고 한국 친구가 아직 많지 않는 경우에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또한 대학교에서 선배에게 종종 연락하여 특정한 수업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대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멘티와 한국인 멘토 프로그램이 한국 생활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제공해 주신 추가 자료와 멘토링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는 용어가 낯설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맞춤형 학습 지원, 특별히 한국어 보충 수업이나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인종 차별이나 편견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몇몇 친구들은 저를 외국인으로 대하며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한국에 와서 느낀 차별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친구들과와의 대화 중에 제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할 때, 그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한국어로 서투게라도 말을 걸며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절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밝게 웃으면서 다가가니 역시 같은 미소를 보여주는 학생들이 그나마 많았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백일장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평소보다 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KYIC한국청소년통역단에 소속되어 통역, 동화책 번역, 외국인 관광지 안내,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지도, 문화 교류 등의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즈베크어, 영어,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저의 언어적 재능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이동이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안내 도우미 역할도,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통역 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래동화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에 전달하는 번역 봉사활동은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입니다. '전래동화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외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 어린이들이 느끼는 교훈 등을 공감시키는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접해본 적 없는 중앙아시아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려인 청소년 성장 사례(2)

유가이 스테판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상담 실무관
고려인 4세이며, 현재 재외동포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라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고, 고려인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권익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stefanyugay@gmail.com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4세 유가이 스테판입니다.

저는 고려인 4세로서,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라는 동안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겼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하셨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 익숙했지만, 한국에서 처음 느낀 차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주 언어 장벽에 부딪혔고, 그런 점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가끔 저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과 친절로 먼저 다가가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 먼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서툰 한국말이라도 얘기를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처음 맞이한 수업 시간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속어와 유행어는 저에게 완전히 낯선 단어들이었고,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국어 보충 수업이나 선생님과의 개별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이나 학습 진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여러 문화가 혼합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돌봐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어, 한국어 등 언어 과목을 가르쳐 준다거나 학교 수업 진도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공부하였고, 때로는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경우 아동이 어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아 어머니를 창피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창피하다는 자식의 말에 눈물을 보이는 러시아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무엇보다 먼저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남모르게 애태우며 고생하셨을 제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아동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고, 아이와 어머니가 마음을 터놓고 다가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학습 지도와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제가 가고자 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모국 한국 사회에 대한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콘텐츠과에서 배운 영상 제작, 기획, 디지털 마케팅 등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 표현력과 소통 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특히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재외동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와 외교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는 성격에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해 해외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 속에 숨겨진 경제, 정치 원리들을 분석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외교 분야에 대한 열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창의적 사고와 다문화적인 경험은 제가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러시아어 통역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작은 국제 회의와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동시 통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통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경제, 외교,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복잡한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의 경력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전 세계에 거주하



한국 청소년들과 고려인 청소년들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는 한인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이 정책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언어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고려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현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동포들이 현지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려인으로서의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고려인 동포로서 계속해서 제 경험과 배경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과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러시아어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발간번호 MYF24-14-개

펴낸곳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발행일 2024년 10월 18일

발행인 유기옥

편집인 양공현, 최병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전화 02-733-7587

팩스 02-733-7586

홈페이지 www.rainbowyouth.or.kr

디자인 및 인쇄 더디앤씨(thednc)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Tel. 02-733-7587 Fax. 02-733-7586 Homepage. www.rainbowyouth.or.kr